

방사광가속기 입지 오늘 발표...전남 신성장 날개 다나

1조원대 대형 국책연구시설
충북 청주와 2파전 경쟁
나주 혁신도시 현장실사
안전성·발전 가능성 등 피력

없이 고품질로 구축해 과학자 등 이용자도 만족하게, 품질 좋은 가속기 사용을 위해 우리 연구진들이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자 일부 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22년 개교할 한전공대, 카페·식당·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한 혁신도시와 방사광가속기 구축 후보지는 각각 400m, 8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10여년 후 시설을 이용할 연구진들의 니즈를 제안사항에 담았다"고 언급하자 평가위원 일부는 "이렇게 좋은 땅을 가속기 지으려고 내놓을 거냐"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선정 평가위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충북 청주 후보지 실사를 이어갔고, 속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지난 3월 말 부지 유치 공고를 내면서 제공부지 면적 등 기본요건 25점, 부지 안전성·접근성·지리적 여건 등 입지 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총 100점 만점의 부지 선정 기준을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입지 조건에 50점이 부여돼 '수도권 인접 지역에 기술어린 선정 기준'이라는 지적이 부지 선정 기준 공개 직후부터 학계에서 제기됐으며, 이는 막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우선협상 대상 지역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2021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 건립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사·도민과 함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기원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1차 심사를 통과한 나주시와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를 비롯한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의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결과가 8일 오전 발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최종 후보지로 함께 오른 충북 청주(오창읍)를 누르고 유치를 확정 지을 경우 1조원대 조정밀·초대형 연구시설을 신성장 동력 삼아 호남권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평가위원들은 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산포면) 일원을 현장 실사했다. 최종부지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15명의 위원은 이날 오전 약 2시간에 걸쳐 전남도가 후보지로 내세운 혁신도시 일원을 둘러보며 유치계획서와 실제 부지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를 살폈다.
이들 위원은 혁신도시 전망대에 올라 한전공대 부지,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한 혁신도시 중심지역, 방사광가속기 구축 후보지 등을 내려다보며 전남도와 나주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고, 문답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에 나선 명창환 전남도 기조실장은 "전남이 좋은 방사광가속기를 만들겠다.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게, 안정적인 부지를 바탕으로 1mm의 흔들림

슈퍼여당 민주당 원내대표에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순천 출신 4선(21대 국회 기준) 김태년(56·경기 성남 수정·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당권과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 개정 전례 회의, 정성호 의원(기호순)을 누르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관련기사 4면>
김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전 의원은 72표, 정 의원은 9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순천고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투신,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간부로 활동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이번엔 주주들 '사유화 결의' 논란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
외부 경영간섭 거부 강력 요구
"시민협세 반납하라" 비난

노동계의 복귀로 한 고비를 넘긴 듯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번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들의 사실상 '생떼수준의 사유화' 결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첫 '노·사·민·정' 상생사업으로 광주시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까지 뒤따르는 사업인데도 공장 설립 과정과 인사, 임금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커녕 되레 광주시와 노동계 등을 향해 '경영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며 외부기관의 경영간섭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마치 주주와 경영진의 사유물로 착

각하는 듯 하다"면서 "외부감시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동안 투입된 광주시민의 세금을 모두 반납하고, 광주시와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짓고 운영하면 될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 광산구 빛그린 산단에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노동계 복귀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주들은 이날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노사 상생 발전협정서 이행을 약속한 노동계의 입장을 신뢰한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주주들은 다만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 회가 상생발전협정서 준수·이행과 함께 GGM에 대한 외부기관의 어떠한 경영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사실상 광주시와 노동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주들은 이어 노동계 이탈 등 최근 위기 상황과 관련해 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광주시는) 투자협약 당사자이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주체로서 협의회를 정상 운영해달라"며 "GGM 경영에 대해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경영 간섭 배제를 강조했다.
주주들은 이와함께 투자 협약, 노사 상생 발전협정서 이행 점검을 위해 주주와 경영진 대표 등 10명 내외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선 비전문 경영인 논란이 일고 있는 박광태 대표 등 GGM 경영진에 위임하기로 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의 세력을 다지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시민사회 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선진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외부 경영간섭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태어난 완성차 공장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주들이 사유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1대 주주가 된 광주시에 대해 경영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광주시민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노사민정사업의 기본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총 5754억원이 투입돼 연 10만대 규모의 경형 SUV 생산라인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총 37개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자본금 2300억원 중 광주시 483억원(21%·1대 주주), 현대차 437억원(19%·2대 주주) 등을 투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